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

—보훈(報勳)을 넘어 소통(疏通)의 이야기로—

조홍윤**

<차례>

1. 서론
2.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조사 연구의 필요성
3. 조사 연구의 방법과 내용
4. 결론

<국문초록>

‘형제의 나라’, 터키와 한국의 우호 기반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터키인이 한국인을 지칭하는 말 ‘칸 카르데시(Kan kardeşim)’, ‘같이 피를 흘린 나의 형제’라는 말 자체가 양자의 관계에 가로 놓인 전쟁의 기억이 지닌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참전용사의 기억들이 터키 사회에 전파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우호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양국의 우호 기반을 형성하는 전쟁의 기억, 그 기억의 주체들인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속속 세상을 등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에 대한 터키의 우호 의식을 견인하고 있던,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던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기억들을 구술생애담의 형태로 집적하기 위한 현장 조사 연구를 기획하였다. 본고는 그와 같은 현장 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조사될 내용 등에 대하여 실제 조사를 통해 확보된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가능성을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구비문학학회 하계학술대회(건국대학교 인문학관 연구동 401호, 2018.08.08.)’를 통해 본 연구자가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고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T.C. İstanbul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Kore Dili ve Edebiyatı A.B.D.) 강의교수(Öğretim Görevlisi)

타진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어 터키, 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현장 조사 연구

1. 서론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지칭하는 터키와 한국, 양자의 관계에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다. 혹자는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알타이 산맥 인근에 뿌리를 둔 두 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대의 고구려-동돌궐 연맹에서 양자의 친연성을 찾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재의 한터 양국이 실질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게 된 직접 계기라면 한국전쟁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의 최대 파병국¹⁾ 중 하나인 터키는 한국을 ‘칸 카르데심(Kan kardeşim)’으로 지칭한다. 이를 직역하면 ‘나의 피의 형제’라는 뜻으로 여기서 ‘피의 형제’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피를 나눈 형제’의 개념이 아니라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형제’를 의미한다. 이는 실제로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도 가까운 관계로 여겨진다. 한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터키인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에게도 자신들의 특별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쓰곤 한다. 이는 터키가 지닌 대한(對韓) 우호의식의 중심에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한국 경험과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수많은 중장년층의 터키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지인 한국전쟁 참전용사로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

1)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 결정을 UN안보리에 통보하였으며, 1950년 8월 1차 파병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090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Necmettin Özçelik, *Mehmetcik Korede: Kore Savaşında Türk Ordusu*, Yeditepe Yayınevi, 2017, pp.16~19).

으며 자라났다. 참전용사를 가족으로 둔 터키인들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예외 없이 자신의 조부, 아버지, 삼촌에 대한 이야기로서 특별한 친근감을 표한다. 그리고 가족사적으로 한국전쟁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보통의 터키인들 또한 스스로없이 한국인을 ‘칸 카르데심’으로 지칭하곤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에는 “다시 전쟁이 난다면 또 한 번 터키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말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국인들을 위로하였으며, 한반도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함께 피를 흘린 형제’, ‘영원한 혈맹’이라는 인식이 터키인 일반의 인식으로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양국의 관계가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국 역시도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지칭하고는 한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 여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터키는 수많은 참전국 중 하나일 뿐이며, 실상 특별한 관심과 우호의 대상으로서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터키가 한국을 가깝게 여기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 우호 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로 월드컵이라는 특별한 이슈가 있기 이전까지도 한국에 대한 우호 의식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터키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²⁾ 이처럼 두 나라의 우호 관계는 다소 일방적인 형태로 균형을 잡지

2)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인 섬유 무역 종사자들의 터키 이주가 시작되었다. 그들 이민 1세대에 따르면 길에서 만난 터키인에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칸 카르데심!”을 외치며 자신들을 끌어안는 터키인들로 인해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는 에피소드가 공통적이다. Necmettin Özçelik에 따르면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던 2000년 이후로 터키 내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하여 한국전쟁의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터키인의 우호의식은 변함없이 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Necmettin Özçelik, op. cit., p.10).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불균형이 언젠가는 양국민의 갈등을 낳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³⁾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⁴⁾ 조사 연구는, 터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보훈의 의미를 넘어 '한국 전쟁의 공통 경험'이라는 양국의 우호 기반을 재조명하고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그러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적합한 조사 연구의 방법과 내용, 결과적으로 얻게 될 성과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2.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조사 연구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다소 불균형적이고 일방적인 한터 간 우호 의식의 형성은, 참전용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터키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기억과 관념들이 정작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LG, SK, 현대 등 많은 한국계 기업이 터키의 대한(對韓) 우호 의식에 힘입어 성공적인 터키 진출을 이루었고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였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3) 특히 최근 예멘 난민들의 수용문제로 한국의 반(反) 이슬람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그러한 염려를 더욱 실체화한다. 터키 국민의 99%는 무슬림이다.

4)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가 '한국전쟁'이라는 핵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조사연구의 대상을 '구술생애담'이 아닌 '전쟁체험담'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술생애담의 구술에 있어서 구술 주체의 판단에 따라 몇 가지 핵심사연이 주를 이루고 그 외의 사연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을 기록하는 것에 있지만,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규모의 구술생애담 조사를 통한 제연구의 시급성이 될 가능성을 엿보는 측면에서 굳이 '전쟁체험담'이 아닌 '구술생애담'으로 조사 대상을 명명한다.

한류의 영향도 터키의 기본적인 우호의식을 기반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과에 만족하며 현상의 유지만으로 긍정적인 한터 교류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가. 문제는 뿌리 깊은 대한 우호의 기반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기억들이, 그들의 소천과 함께 시시각각 땅에 묻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제 곧 터키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모두 생을 마감하고 그들이 지닌 기억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묻혀 버린다면, 한국전쟁의 기억을 통해 다소 일방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양국의 우호도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양국을 연결하는 참전용사들의 한국전쟁 기억을 조사하여 보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항구적 우호를 견인할 단단한 정서적 교량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터키 전국에 생존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방문하여 구술생애담의 형태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보존·보급하고자 한다.⁵⁾

구술생애담은 “한 인간이 평생동안 경험했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으로 소환하여 나름의 규칙을 토대로 구성한 서사체”⁶⁾로서 구술된

5) 2018년 2월 본 연구자와 재 터키 한인회 산하 ‘터키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사업회’는 주 터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중재를 통해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라는 주제로 총 2년간의 조사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제안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사업의 취지와 방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기획서가 제출된 시점이 2018년도 예산 배정이 마감된 이후였기에, 1차년도 예산에 한해 미국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의 ‘UN 참전용사 한국전쟁 자료수집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일부 양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던 당시 시라큐스대학 측 연구 책임자인 한중우 교수와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한 조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가을에 이스탄불에 방문 예정이라는 한중우 교수와 만나 협력 문제의 매듭을 짓기로 하였으나, 이후 가타부타 말이 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관계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게 되었다. 이에 2019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신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6)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73쪽.

경험에 대한 구연자의 현재적 인식을 전(全)의식적 차원에서 담지한 이야기의 형식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의해 구연되는 구술생애담에는 한국전쟁사의 거시적 연결고리가 지닌 빈틈을 매워낼 미시사적 진실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전쟁과 한국에 대한 구연자의 총체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터키의 대한(對韓) 인식이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공유된 참전용사들의 기억과 인식에 기반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한국전쟁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구술생애담을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터키인이 그 내면에 지닌 한국의 형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인간의 삶은 극적인 순간들의 총체로서 누군가의 실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에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구연하는 다양한 한국전쟁 생애담을 통하여, 지금까지 접해본 바 없는, 이미 영화화된 <아일라>의 경우와 같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접하게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을 통해 전파될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한국인과 터키인의 이야기이며, 것처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하나가 한터 양국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연결고리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유려한 말솜씨를 동원한 논리적인 설득보다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크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터 양국에 가로 놓인 현재적 우호 기반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일이 될 것이며, 막연한 기억에 의한 막연한 호의로 이어져 있던 양국을 실제적 진실에 기반을 둔 상호 이해와 정서적 유대 강화의 길로 견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실상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관련된 조사 사업은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방향의 기획은 아니다. 터키 참전용사 기록 보존의 필요성과 시급성, 터키에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절감하였던 몇몇 한인 리더

들을 중심으로 ‘터키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사업회’, 약칭 TKGA5053(Turk Kore savası Gazileri Anma organizasyonu 5053)⁷⁾이 구성되고(2009), 이를 중심으로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 및 소장 자료를 조사·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이러한 활동은 한터 양국의 우호와 연대, 궁극적으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순수한 열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구성원들은 활동을 위한 소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그러한 열정은 소기의 결실을 맺었던 바, 터키 전국을 감동으로 물들인 영화 <아일라(Ayla)>의 실제 주인공 술레이만 딜비르리이(Süleyman Dilbirliği) 하사의 특별한 사연을 발굴한 것도 이들의 열정에 의한 것이었다.⁸⁾ 영화 <아일라>의 개봉은 수많은 터키인들이 한국전쟁과 그로 인해 형제의 연을 맺은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였고, ‘한국전쟁’,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터한 교류사에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일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와 같은 쾌거가 있었지만, 현 TKGA5053의 조사 활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분명한 지원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활동을 이어오면서, 조사 활동의 항상성 유지, 효과적인 자료 조사 방법의 설정,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자료 보존 및 대중 보

7) 터키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사업회(이하에서 약칭 TKGA5053으로 지칭)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기록 보존 사업 외에도, ‘참전용사 한국방문사업’, ‘참전용사 자손 장학금 지급 사업’, ‘참전용사 보청기 증정 사업’, ‘참전용사 사진 전시회’, ‘참전용사 초청 강연회’, ‘기념패 증정 사업’, ‘참전용사 유고시 화환 기증 사업’ 등,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관련한 폭 넓은 기념사업을 기획 추진 중이다.

8) 술레이만 하사는 2009년 1월 21일에 이루어진 TKGA5053의 첫 번째 방문 인터뷰 대상이었다. 그가 당시 구술인터뷰 과정에서 아일라(Ayla)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으로 M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꼬레 아일라>(2010)의 발단이 되었으며, 이 사례가 터키에도 알려지면서 영화 <아일라>(2017)가 기획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급의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 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십 건의 구술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당시의 녹화 영상과 음원이 관리 소홀로 인해 대부분 망실된 상황이며, 인터뷰 내용의 전사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인터뷰 시에 자료 활용에 대한 제보자의 동의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기에 조사 내용의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⁹⁾ 이에 한국 정부 및 유관 기관의 확실한 지원을 기반으로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자료조사 및 정리, 영향력 있는 결과물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실효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3. 조사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구술기록지를 바탕으로 한 구술 조사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 내용은 한국 파병 당시의 경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보자의 일생에

9) 이에 본고의 인용은 TKGA5053에 의해 조사된 자료가 아닌 본 연구자의 직접 조사를 통해 채록된 구술 내용이 추가 된다. 학술대회 발표 당시에 조사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양도받기 위한 조율의 과정에 있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계획대로의 전방위적이고 집약적인 구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 견본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몇 차례의 조사를 우선 진행하였다. 초고령인 제보자들의 특성상 양질의 제보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한계, 통역을 통한 조사가 양질의 구술을 저해하였던 한계로 발표 당시까지 인용 가능한 수준의 구술 자료는 1건이 채록되었을 뿐이며 이후의 혼란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타 제보자의 사례는 TKGA5053의 조사 내용 및 Ali Denizli,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에 인용된 구술 증언을 보조적으로 제시한다.

있어서 한국 경험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파병을 기준으로 ‘제보자의 가족관계나 성장과정을 비롯한 파병 이전의 생활에 대한 내용’, ‘파병 당시의 경험 내용’, ‘파병 이후의 생활과 한국에 대한 회상의 경험’ 등, 제보자의 일생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시기별로 제보자의 자유 구술을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으로써 조사를 진행하며, 준비된 구술기록지의 세부항목에 따라 핵심 구연 내용을 체크 해가며 필요한 정보가 구술되지 않았거나 보충적인 구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세부 질문으로써 내용의 충실성을 꾀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사된 구술기록지의 견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구술기록지		
시기	세부항목	핵심 구술 키워드
참전 이전	출생 시기와 고향	1931, Hashir
	어린 시절의 추억	천 명의 가족, 대규모 농장, 학교X
	입대 이전의 직업과 가족관계	3남 2녀 중 둘째, 5세에 부친 사망(전사), 집에서 농장 일을 하다가 의무 복역 중 파병
	한국 파병에 관한 터키 내 분위기	아무런 사전 소식을 듣지 못함
	참전을 결정한 동기, 지원 당시의 심정	참전 자원, 도와주고 싶어서, 두려움X
	참전 결정시 주변인들의 반응	어머니의 울음과 격려
	참전 출발 당시의 기억과 심정	비장함, 두려움X
참전 당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과 심정	오후에 부산 입항, 위문 공연, 식사 후 곧바로 전선 합류, 정신이 없어서 감상에 젖을 겨를 없었음
	전선에 배치됐을 때의 느낌	긴장X, 두려움X, 정신 차려보니 전투 끝
	첫 전투의 기억	적에게 포위, 나무위의 적, 식량과 탄알 고갈, 1주 동안 물만 마심

10) 해당 견본은 'Mahmut Aka(남, 1931년생), 2018년 7월 20일 15:00-17:10, Fatih, 조사자: 조홍윤, 박용덕, 보조: Zeynep Küçü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대한 기억과 인상	언제나 숨어 있는 적, 모습을 확인할 겨를X,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가졌다면 싸울 수 없었을 것
	전쟁 당시 한국인을 만난 경험	통역 요원 이지즈(별명), 전쟁 고아를 구출, 구두담이 여교사
	타국의 파병 부대에 대한 기억과 인상	모두 두려워 도망, 터키군이 가장 앞장, 미군 “터키군은 미쳤다.”
	부상의 경험	군우리 전투에서 팔에 총상, 일본 병원으로 후송
	가장 위험했던 순간의 기억	
	절대 잊지 못할 전쟁의 기억	동료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 포탄 소리, 총성, 앙카라 학교 아이들
	파병 당시 즐거웠던 기억	게임, 눈싸움, 댄스파티, “터키군은 미쳤다.”
	잊지 못할 전우나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	이지즈, 앙카라 학교 아이들, 구두담이 여교사
참전 이후	귀국 당시 상황 및 귀국 이유	후속 파병군과 교대
	귀국선에서의 감회	집으로 가는 설렘, 남겨진 한국인들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
	고국 땅이 보일 때의 느낌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X
	부두에 내릴 때의 경험과 느낌	전율
	가족 및 지인들과 재회 했을 때의 에피소드와 느낌	눈물의 재회
	귀국 이후의 삶(결혼, 취업, 자녀 출산 등)	이스탄불로 이주, 사촌의 중매로 결혼, 9남매 출산, 가게 운영, 6개월 동안 심각한 PTSD
	귀국 후 들은 한국전쟁의 소식과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회	전쟁터에 돌아간 듯한 느낌, 약간의 공황
	전쟁 이후 들었던 한국 소식과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회	종전 소식, 안도감, 심리적 안정을 찾음
	한국 생각이 났던 때의 경험	초기에는 끔찍한 기억들이 싫어 한국을 잊으려 노력, 그러나 잊지 못함, 2002 월드컵, 영화 <아일라>, 앙카라 학교 고아들의 얼굴
	현재의 한국에 대한 생각	한국인들은 아주 선량함, 사랑스러움, 형제
가족들에게 주로 이야기한 한국 경험	동료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 고아들의 모습, 열심히 살아가는 한국 여인들	
그 외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다시 가서 싸울 것	

제시된 구술기록지 상의 구술항목들은 제보자의 일생에서 한국 경험이 갖는 의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몇 차례의 시험 단계를 거쳐 정리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8년 7월 20일의 실제 조사에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고정된 구술항목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자칫 제보자의 자연스러운 구연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스스로 구술 인터뷰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터키 현지의 조사 인력들에게는 구체적인 구술항목을 기반으로 조사를 이끌어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본 연구자는 조사 연구를 위해 터키어 구사가 가능한 TKGA5053의 한인 조사자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터키인 조사자 인력들을 배정하였고, 이들의 통역을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조사는 통역을 통한 문답이 완전한 의사소통을 저해한다는 한계, 제보자의 말에 조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구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에 따라 조사 중간의 통역 과정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원활한 구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터·한 이중 언어 사용자인 조사 인력들이 구술 조사를 직접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세울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제보자의 전 생애를 담아내면서도 각 시기별로 제보자의 한국 경험이 다양하게 구술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이 제보자에게 지닌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세부항목들을 설정하여 그에 기초한 구술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구술기록지의 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의 한국 경험들 또한 구술될 수 있도록 ‘그 외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항목을 덧붙였다. 남은 문제는 세부 구술항목으로 지정된 내용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세부항목별 구술 내용

시기별로 설정된 구술의 세부항목은 총체적으로 제보자의 한국 경험이 그의 인생에서 갖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안배되었다. 각 시기별로 터키 참전용사들이 겪은 한국전쟁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한 가운데 서있던 참전용사 개인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들이 지닌 한국과 한국전쟁의 경험이 그들의 인식 속에 어떻게 남아 주변으로 전파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전 이전 시기

먼저 참전 이전 시기의 세부항목은 참전용사 개인이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 어떠한 인간으로 자라났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항목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구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자: 먼저 한국전쟁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태어나신 고향,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학교는 어떻게 졸업하시고, 군대에 가서 참전하시게 되는 과정들까지, 우선 어린 시절 살았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나는 이스탄불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Hashir에서 태어나 임대하기 전까지 거기서 계속 자라고 살았어요. 우리 집은 그 지역에서 큰 농장과 목장을 운영했는데, 밭에서 밀이나 보리, 채소들을 기르고 들판에서 소나 양도 길렀어요. [조사자: 큰 농장? 얼마나 컸어요?] 그곳 대부분 땅이 우리 집 안 것이었어요. 친척들이 전부 그곳에 모여서 살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천 명 정도 되는 집안사람들이 함께 거기 살았어요. [조사자: (놀라며) 천 명이나?] 네, 우리집은 그 중에서도 좀 큰 집(높은 서열)이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엔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농사만 짓고 양만 치고 해서 학교도 전혀 안 다녔고, 그렇게 살다가, 터키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데, 저도 그러다가 입대했지요. [조사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지는 내가 다섯 살 때 러시아(소련)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형 하나, 남동생과 여동생 둘 이렇게 살았어요.¹¹⁾

위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Mahmut에게는 금전적 필요나 영웅심의 발로 등, 참전을 해야 할 개인적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집은 굉장한 부농이었으며,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귀국 이후에도 집안의 원조로 이스탄불에 상점을 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윤택한 삶을 살았다. 이에 그의 참전 결정이 어떠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부대 내에서 암묵적으로 참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터키 정부에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이들의 참전을 독려했는지 들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참전 이전 시기의 구술 세 부항목으로서 ‘한국전쟁 파병에 관한 터키 내의 분위기’, ‘참전을 결정한 동기’, ‘참전 결정시 주변인의 반응’, ‘출발 당시의 심정’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에 터키 내부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에 영향을 받은 참전용사 개인은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참전하게 되었는지 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조사자: 그럼 한국에는 몇 살 때 가셨나요?] 19살이요. [조사자: 자원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자원해서요. [조사자: 자원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은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갈 병사들이 필요했는데, 자원한 병사들은 Izmir에 가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입대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자원하고 Izmir에서 교육 받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갔어요. 나에게는 파병을 자원할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원했어요. [조사자: 그때 터키 정부에서는 한국전쟁

11) Mahmut Aka(남, 1931년생), 앞의 자료.

참전에 대해 어떻게 홍보했나요? 왜 참전해야 하는지 이야기 했어요? “형제의 나라니까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는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 참전해야 한다하는 말 같은 건 아무것도 들은 게 없고, 그냥 한국이 위험해서 도와주러 갈 병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대원들이 다 자원하는 분위기였어요. 나도 한국을 돕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자원했지요.

(중략)

[조사자: 한국에 간다고 친구나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뭐라고 들 하던가요?] 파병 자원을 결정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어머니는 한참 우시다가 “옳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니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슬프지만 힘이 났어요. [조사자: 아, 많이 슬프셨겠어요.] 네.

[조사자: 한국에 가시려고 Izmir에서 배를 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조사자: 그때 배가 출발하고 터키 땅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많이 무섭거나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터키 군인들은 용감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두려운 마음 같은 건 없었고요.¹²⁾

구술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터키 군 내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을 위한 홍보가 특별히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참전 여부는 병사들 개인의 선택에 따랐고, 강압적인 파병이 이루어진 정황은 찾기 어렵다. ‘부대원들이 다 자원하는 분위기였다.’는 구술 내용에서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으나, 그러한 의심을 확인할 만한 내용은 구술되지 않았다. 그에 관해서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12) Mahmut Aka(남, 1931년생), 앞의 자료.

13) 실제 TKGA5063에 의한 기존 조사나 여타의 연구서에 인용된 구술 증언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참

실제로 당시 터키의 참전 결정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터키의 NATO 가입을 위한 것이었다.¹⁴⁾ 당시의 홍보 포스터¹⁵⁾에서도 드러나듯, 한국전쟁 파병을 위한 언론 홍보에 있어서도 당국의 입장은 “미국이 터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지, 형제의 나라를 운운하거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친연성을 명분으로 삼



〈한국전쟁 참전 홍보 포스터〉

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 일반에 대한 참전 분위기의 조성 과정은 그러했거니와, 군 내부에서는 자세한 설명의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자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전용사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파병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앞에 단편적으로 제시된 구술 내용, “한국은 도움을 필요로 했다.”, “도와주고 싶어서”, “옳은 일”이라는 표현들이 주목된다. 참전용사들 개개인에게 있어 자신이 한국으로 가야했던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었으며 거창한 정치 논리나 역사적 친연성,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 같은 것들은 인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경험에 매우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기에, 향후 조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강요된 것이라는 구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많은 구술 자료를 집적하여 맥락적인 정황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14) Necmettin Özçelik, op. cit., p.17; Ali Denizli,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33~34쪽.

15) Ali Denizli, 이선미 역(2014), 위의 책, 19쪽에서 재인용.

길고 긴 투르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전쟁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전쟁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자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타국을 돕기 위해 나섰던 최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전의 숭한 전쟁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자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명분이 분명함에도 한편으로는 침략자이자 정복자로서의 입장에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순수 선의 구현’으로서 그들 역사의 획기적인 전기로 인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¹⁶⁾ 파병을 결정한 터키 정부의 입장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의 것이었다 해도, 참전한 병사들 개개인이, 그리고 그들에 의해 한국전쟁을 인지하게 된 터키 사회 일반이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그와 같이 자랑스러운 ‘선의 역사’였다.

더하여 한국에 대한 ‘칸 카르데심’ 관념, 한국을 ‘같이 피 흘린 나의 형제’라 인식하는 터키인들의 관념 또한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닌 참전용사들의 한국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파된 관념임을 엿볼 수 있다. 파병 이전에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참전용사들이 고국에 돌아와 수없이 한국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자연스럽게 덧붙인 ‘한국은 같이 피를 흘린 형제다’라는 말이 전파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선을 구현하기 위한 자랑스럽고도 숭고한 투쟁의 현장이었던 한국이, 그곳에서 함께 했던 한국인들이, 그들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을 형제의 상을 그려 놓았던 것이다.¹⁷⁾

16) 이와 같은 의견은 일찍이 제시된 바 없는 본 연구자의 사견이다.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터키 전쟁사를 치밀히 열람할 필요가 있어 추후의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강하고자 한다.

17) 실제 한국전쟁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그리스 등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여 함께 싸웠으나 터키인들은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칸 카르데심’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파병 대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터키는 1974년부터 터키계 미승인국인 북키프로

(2) 참전 당시

참전 당시의 경험에 대한 구술조사의 기준이 되는 세부항목들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과 심정’, ‘전선에 배치됐을 때의 느낌’, ‘첫 전투의 기억’,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대한 기억과 인상’, ‘전쟁 당시 한국인을 만난 경험’, ‘타국의 파병 부대에 대한 기억과 인상’, ‘부상의 경험’, ‘가장 위험했던 순간의 기억’, ‘절대 잊지 못할 전쟁의 기억’, ‘파병 당시의 생활 중 즐거웠던 기억’, ‘잊지 못할 전우나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 등이다. 참전용사들이 겪은 전쟁 상황의 실상을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그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각인된 기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다.

실제의 구술조사 현장에서 해당 항목들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구술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투 당시에 선보인 자신들의 용맹’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난길에 버려진 아이들, 난리 중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노약자와 여인의 모습들’에 대한 것이다.

그 중 전투 당시의 경험을 구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터키군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느꼈을 두려움 같은 내면적 갈등의 경험들은 구연에서 제외된다. 주로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만 구술되는 경향이 있다.

[조사자: 한국에 가서 처음 부산항에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두렵지는 않았나요?] 오후쯤 부산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고, 식사를 하면서

스 튀르크 공화국에 36,000명의 병력을 배치해둔 상황이며,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하였지만 어느 경우에도 그들을 형제의 나라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터키 정부의 지원 아래 구성된 ‘터키참전용사협회’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북키프로스 참전용사들에 대한 배척으로 인해 종종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연주회를 감상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곧바로 기차에 타 서울을 거쳐 의정부에 내렸고, 거기서부터 전선으로 행군해 배치되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고 감상에 빠질 시간도 없이 곧장 사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한국인들과 함께 싸웠고, 한국인 중에 우리가 아지즈(Aciz)라고 이름을 붙인 통역가가 있었는데, 그와도 함께 싸웠죠. 전혀 두렵지는 않았어요. 터키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면 순교자가 되고 살아남으면 영웅이 된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전선에서는 우리 뒤에 영국, 캐나다, 미국, 그리스 군이 있었고 맨 앞에 터키군이 있었어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나라 군대들이 아직 우리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도망갔고 터키군만 남아있었어요. 적에게 포위됐는데, 적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죠. 결국은 우리가 이겨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적을 쏘느라 탄약이 다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어요. 백병전으로 싸워서 우리도 많이 죽거나 다쳤고, 다른 부대들은 다 후퇴했기 때문에 보급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물 밖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미군들은 터키군을 보고 “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어요.¹⁸⁾

참전 경험을 지닌 남성 제보자들의 생애담 구연에 있어서 스스로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은 일반적이다.¹⁹⁾ 터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오랜 역사를 통해 투쟁의 삶을 살았던 투르크 민족 특유의 남성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의 활약상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영웅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진솔한 내적 경험이 구술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은 아쉬

18) Mahmut Aka(남, 1931년생), 앞의 자료.

19)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 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294~297쪽.

움으로 남는다. 추후 다양한 참전용사들을 조사하면서 전투 당시의 생생하고도 진솔한 내적 경험을 담은 구술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전 당시의 구술 내용에서 주를 이루는 두 축 중 하나인 ‘고아와 여성, 노약자들을 만난 에피소드’, 즉 ‘약자들과의 조우’에 관한 사연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구술 상황에서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조우하였던 전쟁고아, 피난민 행렬, 난리 통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들의 모습,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행색의 노인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그들에게 느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한다.

산에 있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길옆에 가족이 없는 몇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것 같아 그 아이들을 수원에 있는 앙카라 학교에 데려갔지요. [조사자: 다른 참전용사 분들도 앙카라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께서도 앙카라 학교에 자주 찾아가서 봉사를 하셨나요?] 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토요일, 토요일 마다 사령관이 부대를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보급 받은 것 중에 남겨 놓은 껌이나 초콜릿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들을 모아서 다 함께 그곳에 가져가곤 했어요. 그곳의 아이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반겼어요. [조사자: 그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껌이나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을 먹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가져다 줬지요. 아이들은 우리가 방문하면 흥분해서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터키어로 “아빠가 왔다. 할아버지가 왔다.”라고 소리쳤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사자: 귀국하실 때에는 아이들이 걱정 되셨겠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서 기뻐지만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슬프기도 했어요. 배에 올라서도 아이들과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걱정했어요.

[조사자: 또 다른 한국인을 만난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통역을 했던 아지즈(Aciz)가 기억나요. 좋은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무슬림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아주 상냥했고 매우 친절하게 지냈어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아지즈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는 많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끔씩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는데, 아마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한국을 정말 사랑했어요. 한국은 그때 전쟁 중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엄마들은 아기를 업고 터키 군인들을 찾아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가곤 했어요. 저는 일부러 먹지 않고 남겨둔 모든 것들을 그녀들에게 주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작은 도시의 시장에 갔었는데 구두를 닦고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에게 구두를 맡기고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사실 교사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한다.”라고, 그때 저는 한국인의 애국심에 정말 크게 감동했어요.²⁰⁾

위에서도 드러나듯이,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구술되는 내용이 바로 ‘약자들과의 조우’이다. 거칠게 말하면 ‘한국’ 혹은 ‘한국전쟁’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그들이 곧바로 떠올리는 이미지들 대부분이 용맹한 터키군의 모습, 아니면 가여운 한국인들의 형상인 것이다. 지옥 같은 전쟁의 현장에 던져져 있던 너무나 약하고 가여운 한국인들의 모습, 부모를 잃은 아이의 모습, 금방이라도 그 생명이 꺼져버리고 말 것처럼 위태로운 그 모습이야 말로 그들에게 각인된 한국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아일라(Ayla)>, Can Ulkay(2017)의 발단이 된 술레이만 하사의 이야기 또한 한국에 남겨두고 온 아이를 잊지 못

20) Mahmut Aka(남, 1931년생), 앞의 자료.

한 그의 간절한 요청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2019년 1월 TKG5053이 결성되고 첫 번째 방문 조사 대상자였던 술레이만 하사는 당시에 아일라를 만나 함께했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만난



〈아일라와 술레이만〉

정황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건네며 그녀를 다시 찾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해 왔던 것이다.²¹⁾

그 외에도 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에서 만난 아이들에 대해 회상하며 그리움을 내비치곤 한다. 끔찍한 전쟁의 현장에서 만난 절대적 약자들, 참전용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이 명예로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참전, 자신들의 전투가 그저 끔찍한 살인 행위가 아닌 저 어린 존재들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확신함으로써 그들은 영광스러운 싸움에 임하는 선의 구현자로서 자

21) 당시에 촬영된 영상과 음원은 망실된 상태이지만, 조사자 박남희의 노트에 구술 내용이 메모되어 있어 이를 인용한다. “1950년 군우리 전투가 끝나고 후퇴하는 길이었다. 추운 겨울인데도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다섯 살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아이도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다. 부모가 없는 것 같았고, 그대로 두면 끔찍한 일이 생길까봐 부대로 데리고 와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다. 아이에게 Ayla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이는 나를 바바(baba,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물론 부대원 모두가 아이를 사랑했다. 그 후 후속 파병 부대와 교대하게 되어 터키로 돌아왔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앙카라 학교에 보내졌다. 그동안 너무 정이 들어 헤어지는 것이 어려웠다. 지금까지 Ayla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찾을 수만 있다면 꼭 찾고 싶다.”, Süleyman Dilbirliği(남, 1923), 2009년 1월 21일 시간 미상, Üsküdar, 조사자: 박남희, 허경욱, 조규백, 오수용, 이주연.

신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아마도 그와 같이 그들의 한국전쟁 체험 구술에 ‘약자와의 조우’가 빠지지 않는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당시의 기억을 호출하여 서사 주체로서의 자신을 정립함에 있어, 그 아이들, 그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긍정적 주체로서 복원되는 자신을 만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²³⁾

(3) 참전 이후 시기

참전 이후의 경험에 대한 구술조사의 기준으로는 ‘귀국 당시 상황 및 귀국 이유’, ‘귀국선에서의 감회’, ‘고국 땅이 보일 때의 느낌’, ‘부두에 내리던 순간의 기억과 느낌’, ‘가족 및 지인들과 재회했을 때의 에피소드와 느낌’, ‘귀국 이후의 삶(결혼, 취업, 자녀 출산 등)’, ‘귀국 후 들은 한국전쟁의 소식과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회’, ‘전쟁 이후 들었던 한국 소식과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 ‘한국 생각이 났던 때의 경험’, ‘현재의 한국에 대한 생

22) 터키 제2여단 정보장교였던 Nazım Dündar 대위는 자신이 만났던 한국 아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숲 속 외딴 곳에서 눈과 입을 크게 벌린 채 두려움에 벌벌 떨던 아홉 살짜리 남자아이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한 이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고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내 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중략) 그날 학교에서 병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끔찍한 전쟁의 기억만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날의 따뜻한 느낌이 나를 무척 감동시켰던 것이다. 아이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었다. 내 눈앞에는 나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도무지 잊을 수 없다.” (Ali Denizli, 이선미 역(2014), 앞의 책, 129~135쪽.)

23) “구술생애담은 한 개인의 파편화 된 경험이 언어를 통해서 일정한 의미의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술생애담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간다. 구술생애담 속에는 개인의 파편화되고 분절된 경험과 기억이 잇대어지면서 일관적 의미를 형성해 간다. 이러한 의미 형성의 문제는 주체가 복원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정훈(2013), 앞의 논문, 175~176쪽.)

각, ‘가족들에게 주로 이야기한 한국 경험’ 등의 세부항목들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제보자의 한국 경험이 그의 삶에서 지닌 무게와 이후 일생에 미친 영향, 그로부터 전파된 한국 인식의 내용 등을 드러내기 위한 안배이다.²⁴⁾

Mahmut 제보자의 참전 이후 시기에 대한 구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으로부터 귀국한 후 6개월간 겪었던 심각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경험이었다.

[조사자: 귀국하고 나서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가서도 한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탄소리나 총소리가 떠오르고 몸이 떨렸어요.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담뱃불을 침대에 끌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아마 계속 한국에서의 전쟁을 생각 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험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를 썼어요. 나를 걱정한 외삼촌이 이스탄불(Istanbul)에 와서 살 것을 권했고,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술레마니에(Sülemanie)에 가게를 열고 사촌의 소개로 결혼도 했는데, 열심히 살던 중에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괜찮아져서 그 이후로는 쭉 여기 이스탄불에서 큰 걱정 없이 살았어요.

[조사자: 전쟁 기억 때문에 힘들셨구나. 그렇다면 ‘한국에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정부 초청으로 방문했을 때에는 모두가 우리를 잊지 않고 반겨주어

24) 참전 이전이나 이후 시기의 구술 항목 자체는 참전시기의 그것에 비하여 소략한 편이지만, 이는 핵심 정보의 항목을 구체화한 것 뿐, 구술 내용 자체의 비중을 참전 시기에만 두고자 한 것은 아니다. 세부 항목이 그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에 관한 구술 자체는 얼마든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서 행복했어요.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축구 경기에서도 한국 팀이 우리 팀을 형제로 바라보면서 경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일라 영화를 보면서도 앙카라 학교 아이들이 생각나고 많이 그리웠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²⁵⁾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담뱃불을 침대에 끌 정도로’ 심각한 PTSD를 경험했던 제보자는 한국에 대해 잊으려 노력하면서 삶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한 중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PTSD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듯하다. 그와 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한국 사랑은 결코 잊혀 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자신을 초청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잊혀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2002년 월드컵에서 만난 양국의 축구팀을 보면서도 한국과의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다. 영화 <아일라>를 보며 떠올린 앙카라 학교의 아이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항상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조사자: 남편분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나요?] 네, 계속 한국에 가셨던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조사자: 들으신 이야기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아이들 이야기, 폭격으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 슬펐어요.²⁶⁾

[조사자: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나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만난 구두닦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직업은 교사였는데 시장에 나와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이상

25) Mahmut Aka(남, 1931년생), 앞의 자료.

26) Remziye Aka(여, 1939년생), 2018년 7월 20일 17:10-17:45, Fatih, 조사자: 조홍윤, 박용덕, 보조: Zeynep Küçük.

해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나라를 위해 한다.”라고 했던 이야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버지는 항상 한국인들이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고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잊지 않고 한국에 초청하거나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요.²⁷⁾

이처럼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경험은 그들의 가족에게 되풀이 되어 전파되고 있다. 그들에게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8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한국인의 형상이 결코 낮설지 않다. 직접 접하지 못했기에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흐릿하게나마, 그들의 내면에도 참전용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리움, 슬픔, 아픔, 사랑, 형제애 등이 조금씩 물들어 있는 형상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엇인가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에 추후의 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구술생애담 자료들이 수집된다면, 것처럼 참전용사들로부터 그들의 주변에 전파되어 온 한국 인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조사의 방법 및 조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결론에서는 이를 다시금 되풀이하여 정리하기보다 이를 통하여 얻게 될 성과들을 간단히 전망해보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27) Salih Aka(남, 1974년생), 2018년 7월 20일 17:10-17:45, Fatih, 조사자: 조홍윤, 박용덕, 보조: Zeynep Küçük.

첫째로 보편적 보훈의 달성을 그 성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축적될 다양한 구술생애담 자료 및 개인 소장 자료들은, 가혹한 전장에서 한국의 구원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친 터키 참전용사들의 생애를 후세에 전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그들의 삶이 보존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을 영원토록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비록 멀지 않은 언젠가 그들의 생이 다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한국전쟁의 기억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겠지만, 그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물론 구술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담길 그들의 모습이, 자료집으로 또 DB의 형태로 보존되고 전해지는 한 그것은 지나가버린 역사가 아니라 한국인과 터키인의 삶 속에 아름답고 진실한 이야기로서 언제나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보훈 사업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여건상의 한계로 그들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은 일부 열사들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본 조사 연구는 뛰어난 몇몇 영웅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 모두가 영웅이었으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기도 했던 많은 참전용사들의 이름과 삶을 온전히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는 그야말로 보편적 보훈이라는 이상에 접하는 보훈사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획이 여타 수많은 한국전쟁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위한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면, 보훈의 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러 참전용사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한터 양국의 실체적 우호 기반 형성이 또 다른 성과로서 전망된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집적될 자료들은 터키 국내 및 한국에 보급되어 참전용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양국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한국인들은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터키인들이 전유하였던 한국전쟁의 기억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양국이 공동의 기억을 통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터키인들이 표하는 우호의식이 모호하고 관념적인 차원의 수사가 아닌 분명한 실체를 지닌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실체가 희미한 외교적 수사로서가 아닌 ‘형제의 나라 터키’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만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고령의 참전용사들로부터 전파되어 그 아들 및 손자 세대인 터키 중장년층의 한국 인식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경험에서 거리가 먼 청년층 이하 세대에 있어서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막연한 과거의 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기억들이 보급되어 알려지고, 한국전쟁의 기억이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향유될 수 있게 된다면 현 청년층 이하 세대는 물론 이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향후의 한-터 관계는 현재의 다소 불균형적이고 일방적인 우호의 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터 양국이 서로를 진실한 형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억,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를 통해 기록·보존·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의 기억이 녹아든 소통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그러나 구술생애담 조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들의 기억과 경험을 최대한 온전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조사연구에 임하여 풍성한 기록들을 집적해낼 수 있다면, 본 연구자가 미처 짐작하지 못한 다양한 의미들이 자료를 접하는 대중 및 여러 연구자들의 손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Remziye Aka(여, 1939년생), 2018년 7월 20일 17:10-17:45, Fatih, 조사자: 조홍윤, 박용덕, 보조: Zeynep Küçük.
- Süleyman Dilbirliği(남, 1923), 2009년 1월 21일 시간 미상, Üsküdar, 조사자: 박남희, 허경욱, 조규백, 오수용, 이주연.
- Salih Aka(남, 1974년생), 2018년 7월 20일 17:10-17:45, Fatih, 조사자: 조홍윤, 박용덕, 보조: Zeynep Küçük.
- Mahmut Aka(남, 1931년생), 2018년 7월 20일 15:00-17:10, Fatih, 조사자: 조홍윤, 박용덕, 보조 : Zeynep Küçük
-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고전연구학회, 2009, 279~300쪽.
-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 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77~207쪽.
- 나승만, 『민중 생애담 조사법』, 『역사민속학』 9, 민속원, 1999, 191~204쪽.
-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277~312쪽.
- 조홍윤, 『자기발견과 극복의 신화 구조를 활용한 구술 생애담 서사 분석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구비문학회, 2018, 301~330쪽.
- 한정훈,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5집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59~388쪽.
-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69~208쪽.
- 한정훈,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 : 무명의 한 여성 판소리 창자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호권 2호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347~383쪽.
- Ali Denizli,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pp.17~165.
- Necmettin Özçelik, *Mehmetcik Korede: Kore Savaşında Türk Ordusu*, Yeditepe Yayınevi, 2017, pp.7~87.

ABSTRACT

The Meaning of the Field Research on Oral Life Narratives of
the Korean War Veterans in Turkey

Cho, Hong-youn

The friendship between Turkey and Korea, which is expressed as “The Brother’s Country”, is based on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War” above all. The word “Kan kardeşim” means that “my brothers who shed blood together”, which refers to Koreans by the Turks, is suggestive of the significance of the memory of the war in their relationship itself. And this makes possible to imagine the situation in which the memories of the Turkish veteran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spread to the Turkish society and the friendly recognition was settled in the process. The problem is that memories of the war that form the foundation of friend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Korean War veterans of Turkey, the subject of such memories are disappearing. Therefore, the researcher designed a field research study to accumulate the memories of Turkish war veterans of Turkey who were leading the friendly recognition of Korea by the form of oral life narra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specific methods of such field research, contents to be investigated, and its implications and possibilities based on oral data secured through actual research.

Key Words Turkey, Korea, The Korean War, Veterans, Oral Life Narratives, Field Research

논문투고일 : 2019.01.01
심사완료일 : 2019.02.12
게재확정일 : 2019.02.19